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2월 5일(주일) 제1371호

세상의 소금과 빛!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12월 13일~1월 21일 오전 6시 각 캠퍼스 본당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2월 13일(월)부터 내년 1월 21일(금)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진행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양재온누리교회), 이기원 목사(회복사역), 이기훈 목사(사회선교),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강동진 목사(보나콤공동체 대표),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김규철 대표(NIBC), 천종호 판사가 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유튜브, CGNTV)로 참여하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실황을 모든 캠퍼스에 송출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는 순별 단체채팅방을 활용해서 말씀과 중보기도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회에서 매일 문자메시지로 새벽기도회 메시지, 중보기도제목 등을 순장에게 발송한다. 순장은 순원들과 함께 순별 단체채팅방에서 새벽기도회 은혜를 '한줄 기도문'으로 나누고,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와 대학청년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을 주제로 중보기도한다.

특순도 풍성하다. 주찬양, 주사랑, 주향한, 장로합창단, 주기쁨, 대학청년부, 권사합창단, 차세대, 위심콰이어, 일본어예배, 버금콰이어, 사이닝키즈, 온사랑합창단, 교역자합창단이 특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2021 12/13(월)-2022 01/21(금) 오전 6시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 캠퍼스: 실황 중계



조향진 장로(한강공동체)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새해가 되면 좋겠다"고 했고, 서승욱 권사(고양은평공동체)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청,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사랑앓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가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시작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앓나눔'과 지역교회와 쪽방촌 등지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이어진다.

'사랑앓나눔' 사역은 12월 4일(토), 11일(토), 18일(토) 실시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참여한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정 1천 가구에 생필품, 쌀, 반찬 등을 전달한다.

요셉청년부 중랑구복지관, 갈렙청년부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 나섬교회, 갈렙청년부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 등대교회, Pole2대학부 작은자교회, 허브대학부 신앙장로교회와 중앙사회복지관, 하늘대학부 관악노인복지관을 섬긴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11일(토)부터 25일(토)까지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83개 팀이 참가한다. 여호수아청년부 23개 팀 지역교회, 미혼모, 다문화가정, 갈렙청년부 1개 팀 지역교회, J4U청년부 8개 팀 지역교회, 다문화가정, CH PLUS청년부 1개 팀 다문화가정, SNS청년부 27개 팀 지역교회 및 북한선교, W청년부 2개 팀 지역교회, 갈렙청년부 2개 팀 지역교회, 요셉청년부 2개 팀 탈북민, 하늘대학부 2개 팀 지역교회, 허브대학부 13개 팀 지역교회, Pole2대학부 2개 팀 지역교회를 섬긴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2021 엔젤트리 사연 60% 연결

캠퍼스 로비와 목회지원실서 신청

2021 엔젤트리 사연이 60%(5,049건 중에서 3,028건) 연결됐다. 사회선교본부 엔젤트리사역팀 앞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완료 보고도 들어오고 있다. 아직 2021 엔젤트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서둘러야겠다.

2021 엔젤트리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와 목회지원실에 설치된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사연을 뽑으면 된다. 선물은 크리스마스(25일) 전에는 배송하는 게 좋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엔젤트리 사연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면서 선물을 구입하고 포장하고 배송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성경암송왕을 찾습니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참가자 접수

모든 크리스천의 성경암송 생활화를 위한 첫걸음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이 12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CGNTV 성경암송퀴즈쇼 <

바이블킹> 홈페이지나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600여 명이 접수를 마쳤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은 20

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예선과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톨레레게> 전편을 시청하면서 성경암송퀴즈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학습자료와 가이드북 성경암송 구절들이 올라와 있다.

문의: 02-3275-9422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메타버스 타고 교회 가자!

SNS청년부 온누리교회 첫 메타버스 수련회

SNS청년부가 온누리교회 첫 메타버스 수련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킹덤 파이오니아'를 주제로 오프라인(예배당)과 온라인(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온라인 속에 존재하는 가상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 예배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메타버스 수련회를 개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SNS청년부가 지난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메타버스 수련회를 개최했다.

SNS청년부에서 알려 준 메타버스 수련회 링크를 클릭했다. 캐릭터(아바타)를 정하고 닉네임을 만들었다.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상의 또 다른 나다. 최대한 현실의 나와 비슷하게 머리, 피부색, 옷, 액세서리 등을 장착했다. 마스크를 안 써서 좋았던 건 덤이다.

드디어 온누리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본관, 선교관, 2천만광장 등 서빙고온누리교회와 너무나 흡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 외 다른 모임을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다르다. 소그룹모임을 할 수 있고, 함께 게임도 할 수 있다. 선교 체험관 구경도 할 수 있다. 가

장 좋았던 건 둘째 날 특강 때였다. 무려 4개 특강이 분당, 경전홀, 한동홀, 비전홀에서 진행됐다. 장소도, 강사도, 주제도 각각인 특강을 모두 들을 수 없다. 시간이 겹쳐서, 장소가 멀어서, 행사장 정원 초과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인 현실 세계라면 말이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그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본당에서 경전홀로, 비전홀에서 2천만광장으로 순식간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강의를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면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신세계(新世界)를 맛

본 느낌이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SNS청년부 메타버스 수련회에는 한정된 인원(500명)만 메타버스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2박3일 짧은 시간 안에 구현된 가상공간을 모두 돌아보는 것도 무리가 있었다. 접근성도 아쉬웠다. 가능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부터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메타버스 수련회에 참여한 SNS청년부 지체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한나 자매(SNS청년부, 31세)는 메타버스 수련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보다 걱정이 앞섰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SNS 활용에 능숙한 MZ세대도 메타버스 수련회가 생소하고 어렵긴 마찬가지다.

“메타버스를 실제로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생소한데 이걸 준비했습니다. 지체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메타버스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등 설렘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실제로 해봤더니 어려움보다 새로운 경험에 흥분이 됐다.

“줌(Zoom)으로만 보던 지체들을 실제로(가상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공간이라 친숙하고, 아바타(캐릭터)들끼리 돌아다니다가 가까워지면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영상에 배만 드리던 사람들도 직접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한나 자매는 앞으로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어려웠는데 해 보니까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면 정말 좋은 미래형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메타처치

메타버스란 말이 생소한 용어 같지만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사회적으로도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메타버스(Second Life)를 활용해서 수업하고 있고, 한국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입학식과 축제 등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최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콘서트, 360 VR 박물관, 전시회 등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걸그룹도 메타버스를 적용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라는 걸그룹은 4명의 멤버와 그 멤버들을 모티브로 한 아바타가 함께 활동한다. 게임과 기업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회는 어떨까. ‘2021 국민미션포럼’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타버스 시대의 메타처치 목회’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한국 교회에서는 온라인(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인터넷(영상)을 뛰어넘어 가상현실을 삶으로 끌어 들여오는 변화 속에 있다”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처하는 교회(메타처치)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다음세대 목회에 메타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일상이 되는 시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메타버스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메타버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바로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한다.

목회칼럼



최성민 목사
(SNS청년부,
미디어사역본부장)

일종의 거울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가상세계에서도 볼 것 없지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의 만남, 현장의 예배이며, 그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

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최대한 현장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것이 메타버스 기술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굉장히 유용한 툴(tool; 도구)이라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에 들었고 있는데 아직도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많다.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분 단위 혹은 초 단위로

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최대한 현장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것이 메타버스 기술이다.

교회가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에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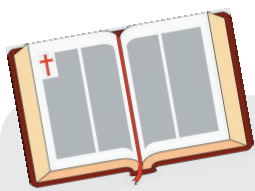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굉장히 유용한 툴(tool; 도구)이라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에 들었고 있는데 아직도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많다.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분 단위 혹은 초 단위로

메타버스와 선교

장소와 장소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은 많지만, 메타버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다양한 미디어 기술들을 사용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AI를 사용한다면 언어의 장벽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K팝, K드라마,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종교를 떠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줄을 서 있다. 선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추수할 시기다. 추수의 시기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그들을 데려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SNS청년부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수련회는 미래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

였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직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도 낯설게 느껴지는 메타버스 공간을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메타버스 선교사 훈련 과정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메타버스 선교사로 세운다면 선교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초청해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코로나19로 갈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 땅끝까지 갈 수 없다면 땅끝을 끌어오면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으면 선교의 기회는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종교”라고 이해합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옛 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게 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태어난 새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모세의 형상, 율법이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율리엄 템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세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수준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세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익스피어의 천재성과 같은 작품을 동일하게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필요한 어머니의 고통과 부모의 수고가 요구되듯이, 우리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잉태되는데 누군가의 헌신, 수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잉태되는데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 생명이 자라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낳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수고까지를 포함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19절).

복음은 언제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때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 강박함, 불순종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을 때 놀랍게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나 반대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때로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지는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자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호소했습니다. 19절에서 “내 자녀들이여”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자녀들이여”라는 표현은 처음 등장합니다. 12절에서는 “형제들이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형제 혹은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5절까지 복음이 처음 갈라디아에 전해질 때 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회상시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13~14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었느냐가 아니라 이 질병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이 질병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멸시하고, 배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이 방해 거리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음으로써 그를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능력있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더 귀 기울였습니다. 시험거리가 될 만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의 이 강함을 보십시오. 저의 강함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의 약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약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의 소식 중에서 어느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사도 바울은 후자였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

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을 안고 갈라디아에 머물렀을 때 그를 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를 환대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듯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일본에서 러브소나타, CGNTV, 두란노서원 사역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걸어서 단에 오르기도 힘든 상태일 때도 있었습니다. 서서 설교하지 못하고 앉아서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야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설교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왜 저러실까?”라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호소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지금까지도 러브소나타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목숨 걸고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하던 하용조 목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성도들 이상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추모하며 도시 곳곳에서 추도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일본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건강을 돌보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었을 텐데 연약함 가운데 사역하신 것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 있다.”

빛진 마음을 가진 일본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러브소나타 전도집회를 도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복음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함을 통해서 더 능력있게 나타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종 온누리교회 장로 47명 장립

“화평하게 하는 장로”



강상훈 장로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을 담은 인생 동안 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양 무리 본이 되는 장로”



곽병철 장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체를 돌보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위로와 권면과 기도에 힘쓰는 장로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양 무리 본이 되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김경학 장로

Acts 29를 써 내려가는 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헌신적으로 섬겨 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장로”



김광훈 장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마음 다하여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솔선수범하는 장로되겠습니다.

“선교에 충성 다하는 장로”



김문갑 장로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겸손함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충성을 다하는 장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 흘려보내는 장로”



김상철 장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자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교회와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로”



김성훈 장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Acts 29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성장하는 장로”



김영선 장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성장하는 장로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장로”



김영욱 장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자원함, 즐거운 마음, 본이 되는 자세로 섬기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되는 장로”



김명환 장로

자격 없는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바보행전 써나가는 장로”



김우호 장로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긍휼의 영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문화)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닮아 겸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Acts 29 ‘예수바보행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써나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장로”



김이준 장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에 힘써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헌신이 필요한 곳에 충성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사회에 덕이 되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장로”



김정민 장로

장로사관학교를 통해 사역보다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뜻을 물어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대로 따르기 위해, 기도에도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역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장로”



김종완 장로

성경 속에 보여주신 많은 인물을 통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자임에도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김창석 장로

“충성된 청지기 삶을 사는 장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섬기는 장로, 중보기도하는 장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사는 장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장로”



김현재 장로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며 소명으로 주신 이사가 61장과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고, 오직 정의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과 섬김의 본이 되는 장로”



김형준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섬기는 자로서 충성함으로 순종과 섬김의 본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김화선 장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장로”

하나님의 인도로 크고 놀라운 계획에 사용하고자 부족한 저를 택하시어 온누리 교회 비전과 계획을 알도록 이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주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묵상하는 장로”



김희준 장로

내가 드리는 것은 없이 목사님들과 19기 선배 장로님들과 동기 장로님들, 과제물 및 고시 준비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온 은혜의 장로사관학교 기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누려왔던 양자의 지위에서 본격적인 종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다잡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항상 묵상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장로”



남윤창 장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훈 담임목사님과 온 성도와 함께 써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소원을 품고 장로로서 온 힘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라상원 장로

“겸손하고 충직하게 섬기는 장로”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장로”



박중현 장로

Acts 29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장로’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덕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로”



배승호 장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롬 16:20). 이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로, 다음세대를 섬기고 세워주는 장로, 성도의 본이 되는 겸손한 장로,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성광제 장로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장로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장로”



심효무 장로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리더십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며 성령의 영으로 늘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장로”



양웅 장로

잃어버린 어린 양인 저를 찾아서 주님 품에 다시 안아주시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제 것이 없고, 제 삶까지도 제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양준홍 장로

“작은 보탬이 되는 장로”

자격 없는 저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과 온 누리교회에 감사드리며,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작은 보탬이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사랑, 헌신, 영광 드리는 장로”



오승탁 장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항상 견지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에 사랑, 교회에 헌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장로”



유봉국 장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유수민 장로

“예수님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장로”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Acts 29 비전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성실히 섬기는 장로”



이병국 장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닮은 온유한 보호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며, 성숙한 인격과 더 깊은 영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장로”



이상준 장로

창조의 목적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삶의 방향과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순종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타인을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사는 장로”



이승규 장로

자격 없는 저에게 명예장로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덤으로 명예장로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잘 이끌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장로”



이재춘 장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사랑과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로”



이진택 장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빛진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교회의 비전을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는 장로되겠습니다.

“축매로 융합 이뤄가는 장로”



장정열 장로

사도들이 가져던 비전과 꿈, 복음을 향한 비울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늘 기도로 분별하면서 교회와 공동체의 사역에 축매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섬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 되어 융합이 일어나도록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덕이 되는 장로”



정영환 장로

장로사관학교 동안 저 자신이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깊이 깨닫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와 공동체에 덕이 되는 장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로”



정원만 장로

매 순간 하나님과 성령님에 이끌리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온누리교회의 합찬 발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충성된 청지기의 삶으로 실현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장로”



정일영 장로

주님께서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주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겠습니다. Acts 29 비전을 실현하는 장로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차세대 사역과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굳세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혼 사랑하는 장로”



정제범 장로

부르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과 누룩의 존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



제무성 장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화목의 밑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례사역 섬기는 장로”



최형수 장로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에서 풍족할 때 교만하여 네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하심과 내 능력과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염려하셨습다.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며 장례사역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



한필규 장로

뒤돌아보니 은혜로 덮어주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저 역시 말씀이 가라할 때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



허경 장로

장로로 부르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본이 되며, Acts 29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장로”



홍갑진 장로

장로로 세워주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복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림을 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장로”



황상운 장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된 장로”



황성룡 장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려 경배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신임장로 47명 장립

12월 4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올해 온누리교회 장로 장립 인원은 47명이다. 신임장로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어진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치른 장로 고시를 통과했다. 2021년 장로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와 Acts 29’, ‘비람직한 장로상’, ‘궁핍의 영성’, ‘사회선교’, ‘온누리 양육체계’, ‘온누리선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임장로들은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키웠다.

전문가 기고

자리와 시간 사이에서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하며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칼럼니스트)

지하철을 탈 때 마다 자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장 거리를 가는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래 서 있으면 피로가 몰려온다. 내 나이 60세가 넘었다. 이쯤마 반열에서 시니어를 준비하는 나이에 접어들었는지 빈 경로석을 넘보게 된다. 혹시나 경로석에 앉기라도 하면 마흔둘에 낳은 늦둥이 막내가 화를 내며 나를 일으켜 세운다. 어르신들이 타면 일어설 것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 같다. 하나는 어르신들의 경로석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윤리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엄마가 할머니로 인식되는 게 싫어서일 것이다.

빈자리, 그 잠깐의 기쁨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 칼 루이스와 벤 존슨(당시 100미터 달리기 세계랭킹 1, 2위)이 서울 지하철에서 달리기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정답은 ‘한국 아줌마’였다. 환승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면 재빠르게 뛰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아줌마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랑스러운 미소가 스친다. 빈자리를 발견하는 순간 가방을 먼저 던져 짊어놓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앉는 경우도 있다.

빈자리를 차지하는 기쁨은 잠시다.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처럼 각자 종착역에서 내려야 할 타이밍이 반드시 다가온다. 잠시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 자리보다 편안함을 주는 내 집이 좋고,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영화보다 영원한 안식을 주는 천국 분향이 진짜 돌아갈 자리다.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주차하기 편리한 교회를 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 주차 전쟁이 심각하다. 교회에서 주차할 때 매번 자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리가 없어서 교회 근처 쇼핑센터에 주차할 때도 있지만, 교회 내 좋은 자리에 주차하는 날이면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떠나기가 아깝다. 한번은 주차안내위원의 손짓에 따라 교회 정문을 통과하는데 바로 내 앞차가 정문 입구 오른쪽 마지막 주차 칸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아깝다! 1분만 일찍 도착했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텐데...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했나?’ 하며 이기적인 아쉬움이 뇌리를 스쳤다. 아쉬움에 젖어있는데 주차안내위원이



그 차를 앞쪽으로 바짝 당기게 하더니 내 차를 마지막으로 주차하도록 했다. 그 순간 천국 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 같은 희열과 감사가 밀려왔다. 주차안내위원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본당으로 들어왔다. 마치 변화산에서 “여기가 종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지어...”라고 했던 베드로의 심정이었다.

역사가 주는 ‘자리’의 교훈

대선을 앞두고 캠프에 들어간 지인들이 적지 않다. 구국의 총정이 가득 차서 합류한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대권을 차지하면 본인에게 돌아올 자리에 대한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치열한 자리다툼으로 얻은 최고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 결국 다 내놓아야 한다. 이윗과 주차 자리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흥기를 휘두르는 사태로 이어지는 것도 자리를 위한 싸움이다.

‘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나 장소,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 따위를 마련해 놓은 곳, 잠자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집단에서 연령, 성(性), 직업,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위치를 의미하는 포지션(Position)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제도나 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에게 역할이 부여되면 기대에 부응해서 위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그릇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지면 공멸(共滅)의 비극을 낳기도 한다. 특히 자질이 안 되는 CEO나 지도자한테 자리를 주면 그 공동체의 발전이 수십 년 후퇴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 16세기 임진왜란을 일으켜 수많은 조선인을 희생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다.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을 통해 왕의 자

리에 올랐지만, 자리 욕심이 많았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목도해야 했다. 영국의 동물학자 존 브래드쇼는 그의 저서 <캣센스(Cat Sense: 고양이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야생 습성이 남은 집고양이들의 자리(영역) 싸움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했다.

“서로 접촉을 꺼리고 날카롭게 응시하며 화가 난 소리를 낸다. 자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직된 자세로 귀를 움찔거리린다. 고양이들이 다니는 출입로나 계단 맨 위로 올라가 몇 시간씩 앉아 상대의 움직임임을 제한한다.”

자리다툼은 인간이나 동물 세계에서 오늘날도, 내일도 계속되는 전쟁이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품었던 새로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곤 한다. 집권 초기에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부패세력들을 척결하지만, 말기에 가서는 어김없이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거나 측근들을 단속하지 못해 국민에게 지탄 받고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전임자가 벌여놓은 사업들을 무조건 중단시켜 국고를 낭비하는 보복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 좋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 한다. 최근 한 달 사이 일어난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얼마나 무상하고,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는 옛말을 깨닫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자리’의 역설

성경은 자리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을 삼가라고 권고하신 예수님(막 12:39)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눅 14:8-9).

자리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가장 빛난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인물이다. 등극 초기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선정을 베풀었다. 3대 왕인 아사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여호사밧 때부터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졌다. 물론 북쪽 아람 세력이 크게 확장하면서 위협이 되었고, 이를 북이스라엘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한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게 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고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판단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영화를 누리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자리에서 여호사밧은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판단력을 상실했다. 그는 죽기 5년 전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여호람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 죄 없는 방백들을 죽이고 악행을 거듭했다. 사람은 평화롭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와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봉사자의 자리이다. 해마다 엄격한 절차로 임직 대상자와 피택장로가 추천되고 일정 훈련과정을 수료한 다음 일꾼으로 세워진다. 공동체와 사역 영역에서 나보다 낮거나 나를 능가하는 일꾼들이 추천되고 세워져서 교회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올해도 선한 청지기 자리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성령의 바람으로, 권능을 힘입어 영적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순예배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순원들이 직장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은연중에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원들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지 온전하게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순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 9:12~13)라고 말씀하셨다. 순예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순원들을 돌아보면 그들 역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우리 모두 그렇다. 우리 안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전혀 의미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초기나 중기나 격리대상인 것과 같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타인에 대한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죄에 감염된 우리의 힘으로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그만둘 수도, 스스로에 대한 교만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의 교만과 죄를 고치실 분은 주님 뿐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주시길 줄로 믿는다.

둘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를 바란다.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어울리지 않으니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죄 때문에 갈릴리로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 부르실 때도, 부활 이후 다시 부르실 때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고쳐주셨다. 이 두 번의 사랑 이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고, 비로소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의 은혜로 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고쳐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얼마만큼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신을 향한 온전한 용서와 기다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그럼에도 순예배를 계속 드리기를 바란다. 모이기를 폐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려는 원수의 전략이 가득한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라고 권하고 있다. 통증 부위가 명확할 때 오히려 치료가 정확해지듯이, 주님께서 성도의 순예배를 통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복음과 치유가 가까운 때다. 순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님의 시선이 임해서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순원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한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 질문에 대해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이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코너이다. 고민 및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이서진 목사
(허브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가장 가까운 간부 ‘부부’

최근 진정한 친구,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진 ‘간부’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성장기에 친구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운다. 친구와의 갈등과 불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갈등과 불화를 이겨내는 방법도 배운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레빈슨이 중년의 남성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도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친구 유무, 혹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의 유무다.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중년 이후 삶이 마냥 고독하지 않을 수 있고, 삶을 함께 살아감에 있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친구의 영역을 뛰어넘어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간부’가 누구일까? 당연히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 친구, 반려자이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채움을 받을 수 있는 ‘힐링 관계’가 부부관계이다.

인간은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다양한 미해결된 과제를 안고 있다. 미해결된 과제는 결혼 관계에서 다시 한번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부부가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

유 중에 하나도 자신의 미해결된 과제,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가장 좋은 친구, 치유자, 격려자가 지금의 배우자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인간은 양육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핍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못다한 과제를 마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결핍된 마음의 마른 우물’을 배우자의 따뜻함과 온화함 등으로 채우려 한다. 자신의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고, 기대가 충족되는 것을 경험할 때 부부는 최고의 동반자, 둘이 하나 된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고백을 한다. ‘진정한 간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라는 고백이 따른다(요 15:13).

그러나 기대했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여전히 자신을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과거, 양육자의 모습을 느끼기도 한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무관심해지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미워지는 감정까지 든다면 상대방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

하기 전에 자신의 결핍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왜 이 배우자와 결혼했는가?’, ‘주양육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주양육자와 관계에서 결핍됐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대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가?’ 등을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결핍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결핍 혹은 미해결된 과제를 배우자와 함께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정직하게 직면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배우자와 나누면서 필요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좋겠다. 부부는 가장 좋은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성실, 정직, 안정, 신뢰 등이다.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열심히 사셨던 모습이 긍정적으로 남아있다. 정말 최선으로 자녀들을 위해 사셨던 부모님의 헌신과 열심에 늘 감사하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내면의 갈등과 결핍이 있었다. 따뜻함, 다정다감함, 돌봄의 온화한 품, 인정 등에 대한 결핍이었다.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내면의 갈등과 결핍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서 이런 필요들이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혼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부분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 성장 과정에서 부족했던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경험이었다. 행복감과 친밀감이 충만했다. 그러나 아내와 관계에서 인정과 따뜻함 등이 제공되지 않을 때면 몹시 실망했고 때로 짜증과 화가 났다.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결핍을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희망한다. 자신의 필요가 배우자로 인해 채워질 때 충만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한다. 영혼의 단편이라는 행복감이 서로에게 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좌절감, 섭섭함, 짜증 등을 느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합한 배우자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서로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부부다.

나눔: 내면에 있는 기본적인 갈등 및 결핍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부부가 함께 결핍과 내면의 갈등을 나눠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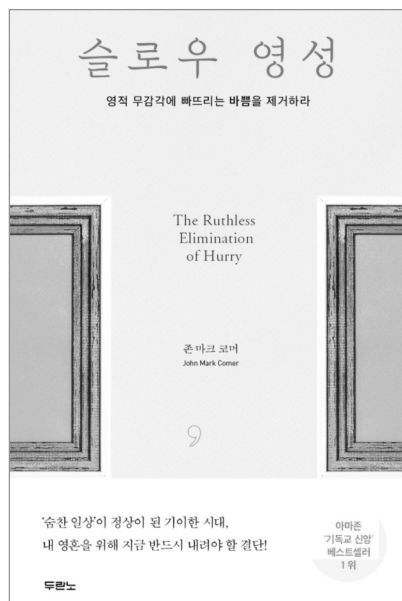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장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느린 삶을 위한 네 가지 훈련



《슬로우 영성》

존 마크 코머 저 | 두란노 | 16,000원

이 책의 저자 존 마크 코머 목사는 서른세 살에 미국에서 성공한 멀티사이트교회의 담임목사였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대형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놓는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저술한 책이 《슬로우 영성》이다.

이 책에서 그는 ‘바쁨’이 현대인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한다.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24시간 이어지는 뉴스, 도시화, 끊임없이 막히는 고속도로, 수많은 소음 등이 우리 삶을 바쁘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요즘은 초등학교생들도 바쁘다. 주부들도 일과가 너무 바쁘다. 저자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한다. 예수님도 바쁘게 준비하던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눅 10:41~42).

바쁨 가운데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사역 스케줄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 때면 불안이 찾아온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무엇인가 빠뜨리면 어떡하나? 염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바쁘게 지내던 동료 목회자가 전해 준 이야기다. 토요일 아침 모처럼 팔아와 한적하게 공원을 가고 있는데 오래전 잡아 놓은 강의 장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두 시간을 강의하기로 했는데 헬레벌떡 뛰어가서 한 시간을 겨우 채우고 돌아왔다고 했다. 바쁘게 살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길을 잃

는다.

바쁘게 사는 삶의 특징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세상에 가서만 안식하는 삶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고, 그 복음을 현재 누리며 나누는 삶이 구원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하루 평균 2617번 스마트폰을 만진다고 한다. 예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무의식적으로 집착한다. 만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느림의 영성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오직 나의 내면과 세상의 소음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바쁨을 탈출해서 느림의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네 가지 훈련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 침묵의 영성 훈련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욕구를 멈추는 연습을 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쉬지 못함을 아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만의 쉼을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최근 2년 동안 하루도 쉼새 없이 일하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나를 찾아온 내담자가 있다. 그는 7일 중에서 단 하루도 쉼이 없다고 했다. 멈추어 쉼을 누리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거나 관계가 파괴된다. 셋째, 삶을 단순화시켜라.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줄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분명 단순하게 살 수 있다. 넷째, 삶의 속도를 늦추라.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싱글태스킹을 해야 한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몸과 마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느리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천히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서랍에서 다시 꺼낸 영화

“기적은 모든 곳에 있다!”


 《미라클 프롬 헤븐》
패트리시아 리건 감독
| 2016년 개봉 |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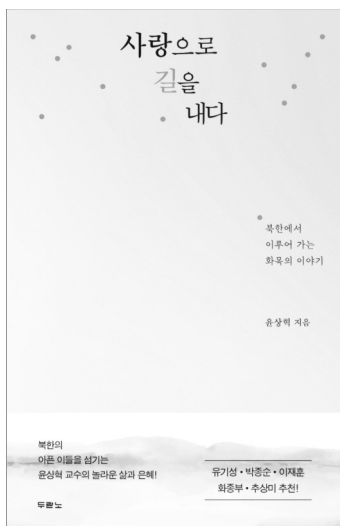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곳곳에서 크고 작은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 시리즈존, 티빙,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 가격은 1,300원.

“Miracle are anywhere!(기적은 모든 곳에 있다!)”

주인공 크리스티의 간증이자 이 영화의 교훈이다. 우리 삶 곳곳에 기적이 숨겨져 있다. 깨닫지 못할 뿐이다. 크리스티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 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 날 둘째 딸 애나에게 원인 모를 불치병이 생긴다. 크리스티는 어린 딸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크리스티는 애나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의 조언과 뜻밖의 도움,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 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애나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설상가상 집 앞 나무에 오르다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당한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나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애나는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종합검사 결과 불치병도 말끔히 나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크리스티는 그동안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셨고, 크고 작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깨닫는다.

두란노 신간

사랑만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윤상혁 저 | 두란노 | 14,000원

“우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 머물면서 화목을 위해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이다.”

북한에서 크리스천 NGO단체와 함께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윤상혁 교수의 고백이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윤상혁 교수와 그가 북한에서 이루어가는 화목의 이야기가 책 〈사랑으로 길을 내다〉에 담겼다.

윤상혁 교수는 가족과 함께 13년 동안 북한에 머물고 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서 살게 된 것은 윤 교수 아내의 오랜 꿈 때문이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자란 그의 아내는 청소년기에 정체성 혼란으로 늘 괴로워했다. 한 수련회에서 “북한이 너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이 이해되었고, 북한에서 사는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다렸다. 2007년 4월 마침내 북한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저자 가족은 북한을 위해 삶을 드리기로 했다. 저자 가족은 사역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낙심, 좌절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셨다. 북한에서 살면서 십자가 사랑은 ‘화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 책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땅에서 하나님이 펼치는 놀라운 화해의 여정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장벽이나 다름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모바일 커뮤니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색다른 선교적인 경험을 맞고 있다. 10월부터 6주 동안 화성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에서 우즈베키스탄 통역으로 일을 했다. 화성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주요 확진자들이 우즈베키스탄인들이었다면서 화성시청에서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통역을 시작하고 2주쯤 후부터는 초기증세가 심한 우즈베크인들을 위해 수원온누리교회 살롬의료팀에서 지원해 주신 타이레놀과 동네 빵집에서 산 빵을 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 집 앞으로 찾아갔다. 나도 두려웠지만, 초기증상이 너무 심하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전에 폐렴으로 병이 악화하기에 도움이 필요했다. 자택에 있는 확진자들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고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다. 나는 민족, 나라, 종교도 다르지만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을 22년 동안 섬기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생각하며 사역해 왔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코로나19 확진자 집을 찾아 간 것이다. 감사하게도 최근 센터 주변으로 이사 온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5명의 코로나19에 확진된 우즈베크인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5명의 확진자는 상태에 따

빵과 타이레놀 그리고 빛과 소금



화성M센터 최명현 선교사가 이주민 형제들을 심방을 하고 있다.

라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에서 치료 받고 돌아오면서 나에게 감사전화를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이곳에도 한국인이 필요하다’며 나를 소개하고 가입시켜 주었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화성시에 사는 600여 명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1,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에는 많

이 만나야 일주일에 4~5명의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1,000여 명과 만나게 되었다.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이주민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다양한 대화와 정보들이 오간다. 나는 그곳에서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를 하기도 하고,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기도 하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

리고 나서 개인적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한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나한테서 도움을 받은 우즈베크인이 “당신은 누구인데 왜 이렇게 이주민들에게 친절하나?”라는 질문을 해 왔다.

“예수님께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데 진짜 왜 도와주냐?”

“성경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는데 왜 도와주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선교의 열매를 맺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가상의 세계가 화두인 이 시대 나는 이주민들의 가상공동체로 초청을 받았다. 그 비결은 빵과 타이레놀과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비법과 전략은 없다. 선교사와 성도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자 전도자다.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내적치유학교 수료 간증

나는 2000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나 그해 9월부터 남편과 별거했고, 그 다음 해 이혼했다. 이혼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삶은 말 그대로 폭풍 한 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늘 두렵고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다. 무엇보다 어린 딸에게 엄마는 세상 그 자체였고, 의지할 대상이었기에 더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다. 이혼 이후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의 빗장을 걸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관계를 끊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나는 어릴 적부터 유독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잘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독이고 위로했던 기억이 많다. 이혼 이후 내 상처가 아프기도 했고, 그 상처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고 싶었다.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쓰였다. 그래서 내적치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 <생명의 삶>에 소개된 내적치유 세미나에 참여했다. 그런데 상처는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만 굳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 안에 쌓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

치유 받고, 회복되고, 해석되기를



임미정 성도(성북공동체)는 내적치유학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 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지기를 바라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회복예배도 드렸다.

지나해 기도학교에서 만난 조장님이 내적치유학교를 권유 하셨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단하고 내적치유학교 61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

고 마음이 열렸다. 역기능 가정의 상처가 비로소 이해되었다. 강의와 소그룹 나눔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나는 딸에게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준 엄마였다. 그럼에도 잘 자라준 딸에게 감사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것과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 나조차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처들이 나를 계속 짓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따라 나를 보듬고 “괜찮아, 살아 있어 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고 따뜻하게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강의 ‘용서’를 들으면서 용서 편지를 꼭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나의 상처와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의 상한 마음이 치유 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각자의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내적치유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스태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 임미정 성도(성북공동체)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겠습니다!”

2021 권사, 안수집사 임직예배 ... 509명 임직



지난 11월 27일(토) 서빙고 본당에서 열린 ‘2021 권사, 안수집사 임직예배’에서 임직자들이 안수를 받고 있다.

온누리교회 새 리더십 509명이 세워졌다. 지난달 27일(토)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2021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권사 224명(명예권사 6명, 권사 218명), 안수집사 285명(남자 92명, 여자 193명)이 임직됐다.

2021 임직예배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정진호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온누리세라핌합창단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합심기도, 2부 임직서약, 안수기도, 임직선

포, 특순, 권면, 임직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리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목사는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로 임직을 받는게 아니다”라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남진희 권사(서초A공동체)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기쁘게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했고, 박현 집사(한강공동체)는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종으로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안수집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요!”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생명존중 캠페인

아름다운 피켓(대표 서윤화 목사)에서 2021 크리스마스 캠페인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해요’를 12월 24일(토)과 25일(주일) 신촌(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홍대(뉴발란스 앞,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강남(카카오 프렌즈 앞)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다.

1년 중에서 낙태율을 가장 높이는 시기인 크리스마스에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방지 목소리를 외치는

생명존중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주세요”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낙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들은 12월 24일과 2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단위(3시~4시 30분, 4시 30분~6시, 6시~7시 30분, 7시 30분~9시)로 피켓팅을 하면 된다.

문의: www.beautifulpicket.com

“천국잔치에 초대합니다”

여호수아 전도집회, 요셉청년부 초청집회

대학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동체의 파스함이 필요한 이웃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한다. 새신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집회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초청집회를 개최한다.

여호수아청년부 전도집회 ‘Rejoice Together’는 12월 5일(일)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김승수 목사가 설교하고, 특별 게스트로 범키와 여니엘이 출연한다.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한다. 전도

집회는 찬양, 특순, 블레싱 영상, 블레싱 이벤트, 설교,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요셉청년부 초청집회는 12월 11일(토)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배해삼 목사가 설교하고, CCM가수 김동욱(히즈윌)이 특순한다. 공동체를 떠난 청년들, 공동체를 찾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대상이다. 초청집회는 찬양, 설교, 비전선포, 결단, 특순, 세례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5시부터 2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2월 5일(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6330-7634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내년 1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내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 조별모임도 병행한다. 1월 29일(토)은 명절 연휴로 휴강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두란노 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2182-9110

12월 화요성령집회 ‘크리스마스 캐스팅’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2월 화요성령집회가 ‘크리스마스 캐스팅’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 예약 시스템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2월 화요성령집회 ‘크리스마스

캐스팅’에서는 7일 김승수 목사 ‘마리아의 축복’ (마 1:18~25), 14일 이서진 목사 ‘목자들의 경배’ (눅 2:8~20), 21일 김승수 목사 ‘시므온의 고백’ (눅 2:25~35), 28일 김윤식 목사 ‘메시아의 영광’ (요 1:1~18)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이시문, 이한진밴드, 하니, 여니엘 등이 특순한다. 문의: 02-570-7521

갈렙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내년 1월 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SNS에 올라오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조별모임도 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 관리’, ‘미션 헬퍼십’, ‘이주민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2월 2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마음 모아주세요

온커넥트(On-Connect!) 선교 블로그 제작 의뢰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가명)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선교 동원을 위한 블로그를 만들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 강의, 경험, 선교지 상황 등 다양한 신앙, 선교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보다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블로그를 제작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연 연결

승합차 후원해주세요

김포M센터에서 승합차를 후원해줄 성도를 애타게 찾고 있다. 김포M센터는 이주민 100여 명이 신앙공동체(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를 이루고 있다. 김포M센터가 위치한 곳(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65번길 양곡프라자 703호)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왕래가 어렵다.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차세대공동체(다문화꿈땅, 파워웨이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구자현 선교사(김포M센터장)는 “이주민 성도들과 공동체가 늘면서 기존에 있던 승합차 한 대로는 운영이 어렵다”면서 “차세대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승합차가 꼭 필요하다”고 후원을 부탁했다. 문의: 010-6869-4290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혜숙 성도(이천은광고회)

딸이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어머니 당신은 참으로 강인하고 크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시도 떼어놓지 못해서 공사판에도 업고 일하러 다니셨고, 일이 힘든 시기에는 줄로 저를 한쪽에 묶어놓고 오가며 살피셨는지요. 어머니는 일하러 다니며 제가 다른 이들의 손을 탈까 봐 남자아이처럼 꾸며서 데리고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자라면서 오빠들의 옷을 물려 입어서 인지 대학에 가서 치마와 핸드백이 불편했고, 주머니 많은 옷과 바지가 편해서 즐겨 입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부모님의 고생 덕분에 우리 집은 먹고살 만해졌고, 어려서 못 해준 게 아쉬우셨는지 저를 여자처럼 꾸미려 무던히도 애쓰시던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제가 스물일곱 되던 해 결혼을 해야 한다며 반강제로 이천으로 시집을 보내시고는 외로움에 배낭 한가득 먹을 것을 담아 주말마다 오셨지요. 주말마다 오셔서 저를 챙겨주셨고, 당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첫아이 출산과 연이은 둘째 아이 출산을 마다하지 않고 도우셨지요. 그 사랑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몸이 편치 않으실 때 제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우여곡절 정말 많았지만, 함께 지내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사위에게 미안함으로 제집에 거하기를 꺼리시며 요양병원으로 가신 지 수년이 되었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다가 1년 8개월 만에 뵈 수 있다 해서 찾아뵈었지요. 이제는 사납게 사신 기억을 거슬러 올라 안정적으로 사셨던 좋은 시절 기억에 머물러 계셔서 인지 안과 밖이 편해 보이는 어머니를 뵈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억척스럽고 사납게만 보이고, 말로 상처를 주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모양은 달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려 합니다. 요즘 어머니가 조금 더 건강히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께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로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도록 삶의 시간을 더 주십사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들과 딸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시간을 보내세요. 어머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딸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문



/ 이주선 집사(성동광진공동체)

결국은 사랑!

“언제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다. 지나온 기억들을 되새겨 보니 학생 때 달리는 버스에서 이태원 쪽대기에 영화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궁전 같은 건물을 봤을 때부터 관심이 생긴 것 같다. 교회에 다니면서 그 건물이 이슬람 중 앙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았던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이 뒤섞이며 점점 부정적인 관심으로 내 마음에 정제되어 있었다.

와이무슬림 강의에서는 이슬람의 역사와 무함마드, 꾸란과 성경, 수니파와시아파,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 이슬람 현황 등 나를 비롯한 기독교 인이라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영적으로 내 심령을 터치한 내용을 나누고 싶다.

첫째, 이슬람이 확장하게 된 과정에 교훈이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 가운데 십자군 전쟁과 1·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가 힘으로 이슬람을 제압하려 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다. 수많은 이슬람이 해외로 이주해서 더 확장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

는 분별력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교회로 등록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나는 무슬림 뿐만 아니라 일반인 전도를 하면서 외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인하는 것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대할 때 성경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와이무슬림 6주 과정을 마치면서 두 가지 큰 열매가 있다.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해줄 내용이 준비된 것과 이슬람을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혐오에서 포용’으로 바뀐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무기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사랑이고, 이슬람과 대적해 싸우는 무기도 사랑이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도, 혐오의 대상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입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 안수집사 임직 간증



/ 박현 안수집사(한강공동체)

그리스도의 선한 종의 다짐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 부부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안수집사 직분을 받게 된 솔직한 심정은 묵혀놓았던 숙제를 마친 것 같이 홀가분하다. 우리 부부는 2006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20년 젊음을 다 드리고 사랑했던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온누리교회 첫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잊지 못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예배였기 때문이다. 낮은 교회, 낮은 예배라는 느낌이 없었다.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상처 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하고 있었다. 순예배와 차세대 교사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의 은혜, 중보기도로 인한 기도응답 및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우리 부부가 온누리교회에서 누린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섬김과 기도응답 덕분임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온누리교회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에

임직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주저했다.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 차세대 교사 봉사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임직을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 학점, 봉사, 과제 등 임직 과정이 만만하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였다.

2019년 차세대 담당 장로님이 차세대 사역이 임직 조건에 많이 반영된다고 알려주시면서 직분자가 되어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임직을 권면하셨다. 임직자 스쿨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도 많이 도움이 됐다.

“온누리교회는 성령 충만한 임직자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임직자스쿨 교재에 쓰여진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메시지처럼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몸 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안수집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안수집사가 될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한철, 김희정 선교사(네팔)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1년이 어느덧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자신의 옷을 벗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고, 현지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10월부터 모든 학교와 모임을 개방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교회와 센터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모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센터가 학생들의 학교 방학으로 장기

간 쉬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스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끄레라는 학생이 이번에 태권도 1단에 응시하면서 준사범으로 임명했습니다. 수끄레 준사범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끄레 준사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포카라 지역에 바이블 스쿨이 있습니다. 교회사역자와 리더를 키우는 8개월 코스입니다. 박한철 선교사가 성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수업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삶을 드리고, 네팔 교회들이 건강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큰아이는 미국에서 대학 3학년 편입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치위생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김희정 선교사가 12월에 선교지로 귀임하면 아이들끼리 지내야 하는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에세이

“화(禍) 있을 것이다”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뤄지는 때, 곧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

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혼돈과 역설의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현실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합 2:1).

예언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응답될 지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의 변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기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상황의 변화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눈빛, 손짓과 작은 움직임에 먼저 깊은 관심을 두고 집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합 2:3).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해주셨다(합 2:4-8).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는 의(義)로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義人)의 일용할 양식을 ‘오직 믿음뿐’으

로 한정시켜 놓으셨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합 2:4).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만족함이 없는 거만한 사람, 폭력을 행사해서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고 약탈함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禍)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의 간구가 응답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의심 없는 믿음을 사용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삶 속에 하나님께 화(禍)를 입을 이유가 없는지 질문해보고 싶다. 예언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들을 퀴즈대회 힌트처럼 세밀하게 알려주셨다. 그 힌트는 “화(禍) 있을 것이다”라는 반어법(反語法)을 사용해서 말씀해주셨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재(蓄財)하는 사람들(합 2:9), 헛수고가 될 줄 모르고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합 2:12-13), 자신들이 수치스럽게 될 줄 모르고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그들의 별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들(합 2:15-17), 생기가 전혀 없고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인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들(합 2:19)에게 화(禍)를 베풀어주시길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모습이냐 태도를 문제없다고 여기는 마음이나 생각은 없는지 고민해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발발 떨면서 눈치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거룩한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땅과 함께 잠잠하기를(합 2:20) 간절히 소망한다.

장로칼럼

의(義)의 길로 나아갑시다!



백승웅 장로
(사역장로회장)

13명의 은퇴장로들이 사역장로회로 전입해온다. 나는 이분들에게 잠언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

65세가 지나면 대부분 머리카락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한평생 살아온 노인들의 백발은 믿음으로 경주한 인생의 승리자로서 면류관을 쓴 것처럼 찬란해 보인다. 그러나 약하고 추하게 살아온 사람의 백발은 오히려 초라하고 추해보일 때가 많다. 사역장로들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결하고 품위 있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자 ‘의(義)’의 뜻을 풀어보면 ‘내(我) 머리 에 양(羊)을 이고 가는 형상’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예수님이 떠오른다. 나는 이 글자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노년의 아름다움과 최상의 상급은 의의 길에서 얻으리라는 단서는 사역장로들에게 큰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삶이 의의 길이며, 영화로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만 70세가 된 시무장로들이 사역(은퇴) 장로로 신분을 바꾸는 제도를 2010년부터 채택했다. 사역장로회 초반에는 시무장로 20여 명이 사역장로로 전환했는데

지금은 263명으로 그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퇴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나는 나이가 지긋해졌으니 이제 좀 쉬어가자는 마음가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선에서 소외되면서 오는 상실감과 소속감으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역장로회도 그런 뜻에서 결성했다.

사역장로회 소속 모든 장로는 평생 직분자로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헌신할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봉사로,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과 차세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향존직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타 교회나 학원, 교도소 훈련원 어디에서나 일대일제자양육과 QT를 요청하면 지원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는 미자립교회 지원, 안산M센터 방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요양원 거주자 방문 등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사역장로들은 시무장로들의 섬김과 활동을 도우면서 교회의 견고한 울타리로서 역할을 감내해야 한다. 사역장로회 모임을 꾸준히 가지면서 친목 활동도 하고 싶다. 황금기 같은 여생(餘生)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또래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 각자에게는 주어진 사역(Mission)이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Ability) 또한 주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한 실행 의지(능력)를 높이기를 바란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된 지체로 살아감으로써 만년에 영화의 면류관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약한다. 70대 초반 젊은 장로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홍범식 장로
(두란노해외선교회)

“한 번 주차는 영원한 주차!”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구호다. 많은 사역이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 사역만큼 고된 사역이 없다. 안 그래도 인원이 별로 없는데

은퇴한다고, 사역을 바꾼다고 주차사역팀 팀원이 계속 줄면 안 되니까 외치는 구호다. 시무장로를 은퇴하니까 그냥 못 체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나는 주차사역팀과 함께 할 것 같다.

은퇴를 앞두고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 또 하용조 목사님 생각이 난다. 내가 온누리선교제단에 있을 때는 하용조 목사님을 가까이

서 뵈는 일이 많았다. 하루는 하용조 목사님이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교도소로 전도하러 가시는 길인데 운전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셨나 보다. 하용조 목사님이 큰 수술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전도를 꼭 해야 한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홍 집사, 교회 목사들은 일하느라고 전도를 못 하고, 전도사들도 전도를 안 해. 성도들은 사역하느라 전도를 안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지 교회가 살아.”

차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얼마 뒤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교도소 문을 나오셨다. 기분이 좋으셨는지 농담도 하셨다.

“홍 집사 오늘 그 형제 영접기도 했어.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니 얼마나 좋아.”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잠시 눈을 붙이곤 하셨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하

나님과 교회에 대해 배웠다.

종종 하용조 목사님 방에 내려가 이런저런 일을 하곤 했는데 일하다 보면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곤 했다. 신앙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셨고,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하용조 목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곤 하셨다.

“그래서요?”

은퇴를 맞이한 나의 고민을 하용조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주차사역팀도 계속 섬겨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할 것 같고, 선교사님들도 계속 돌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싶는데 청소 집사님들께 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래서요?”라고 대답하실 것 같다. 은퇴식은 있지만 은퇴는 없다. 힘 닫는 데까지는 사역하고 싶다. 주차사역도 계속

하고, 특히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 오지나 아프리카 등지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 한번은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선물로 들고 간 라면 한 박스를 부어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면 심방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팀도 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국내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선교사 부모님들과 자녀들도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선교사 부모님들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 그분들께도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이역만리 타국에 보낸 심정도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도 있다. 선교사 자녀들이 비전과 소망을 찾을 수 있게 그 아이들을 섬기고도 싶다.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은퇴식은 있지만 은퇴는 없다.

은퇴식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목사님이 많이 아파서 꼭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통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 성장과 성숙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하용조 목사님 육체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듯이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성공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나타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할 수만 있었다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뻘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15절).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16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 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원수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압니다. “누군가 원수가 되고 싶은가? 진실을 말해 줘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담을 쌓게 만듭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합니다. 진실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지 않고 상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거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처럼 만듭니다. 스스로 복을 차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전할 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갈등으로 유발합니다. 미국에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영이 침투하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면 옳은 것이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리 편이나 아니냐를 따져서 몰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엡 4:15).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원수가 될까 봐 사랑으로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 없이 정죄의 마음, 판단과 복수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은 진실이되 사랑이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 일어나면 확연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랑파와 진리파입니다. 한쪽은 사랑으로 덮자고 하고, 한쪽은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자고 합니다. 양쪽 말을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틀린 것은 한쪽은 진리를

버렸고, 한쪽은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므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17절).

여러분, 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열심 속에 이기심이 있는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인지,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형상을 심어주려고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 집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를 끊는 고통이요, 모든 이에게 죄를 떠나도록 하는 고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붙어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고통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고통이기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 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지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을 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광순 장로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과거에 행한 것들에 대한 죄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 때문에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대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 아닐까 싶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다. 실존한 친구가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용기와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피할 길을 찾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할 일이다. 그것이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 ‘경제정의’라는 팀이 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이나 재정적 도움을 제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 및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부채탈출 119’라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둘째, 건전한 신앙적 재무관리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립 및 사회적 공감 확산 운동을 세운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소홀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힘들 때 참으로 귀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했다. 그 하나가 학교를 세워 위대 한 백성들을 깨우친 것이다.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다. 구습 타파에도 교

회가 앞장섰다. 만연했던 담배와 술을 끊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조선 선교 초기 기독교적 사회운동이 다시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선포하던 시기보다 더 큰 위기 아닌가 싶다. 물질만능주의, 이익 우선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함께 찾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해야 한다.

경제생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한다.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활동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아름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것이다.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주장해야 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Living with Jesus Christ)’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란 주님의 사랑을 연약한 이웃과 나누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답고 정상적이며 공의로운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생활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역이다. 부(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 부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은 나눌수록 정직하게 다뤄지고, 운용될수록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가게 될 것이다. 경제정의팀은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부를 공의롭게 다루도록 사람들을 깨우치고, 경제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세우는 노력을 할 것이다.

경제정의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CGNTV

풍당

풍당 추천 키즈 콘텐츠

재미와 신앙교육을 한 번에!
풍성한 키즈 콘텐츠를 풍당 앱에서 만나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



바이블 허니랜드



성경의 주요사건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뽕큐바이블스토리



귀여운 일러스트레이션과
재미있는 스토리로 배우는
영어성경

은강이와 은냥이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하는 재미있고 은혜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

위지키즈랜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콘텐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풍당 Fondant' 앱 다운로드하기



2022년 CGNTV 말씀달력이 출시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2022년을 준비하세요.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796-2243

